

# 국내은행 해외점포 순익 48.7% 증가

### 금융감독원, 이자이익 13.7% 증가 리스크 관리로 대손비용 65% 줄어

지난 상반기 국내은행이 해외점포에서 번 순이익이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월 은행권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은 4억 6120만달러(약 5218억원)로 전년 동기(3억1020만달러) 대비 48.7% 늘었다. 이는 상반기 중 국내은행 총 당기순이익(8.1조원)의 6.5% 수준이다.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 증가 등으로 이자이익이 13.7% 증가했고 리스크 관리로 대손비용도 65% 줄었다.

6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모두 184개(41개국)다. 올 들어 미얀마, 홍콩, 인도, 폴란드 등에 6개 점포가 신설됐으며 문 닫은 점포는 없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19개), 중국(15개), 인도(15개), 미얀마(13개), 홍콩(12개), 일본(8개) 등 아시아지역이 127개로 전체의 69.0%를 차지했다. 이외 유럽 22개(12.0%), 북미 21개(11.5%), 기타지역(중남미 등)에 14개(7.7%)의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다.

해외점포 총자산은 1012억2000만달러로 국내은행 총자산(은행계정)의 5.0% 수준이었다. 자산종류별로 대출금(43억5000만달러), 은행간대여금(10억4000만달러), 유가증권(7억5000만달러) 등이 크게 증가하고 현금·예치금은 7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자산 건전성은 좋아졌다. 6월 말 현재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부실채권(고정이익여신)비율은 0.9%로 지난해 말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국내은행 전체 부실채권비율이

1.25%인 것을 감안하면 리스크 관리를 잘한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은행 해외점포 현지화지표 종합평가등급은 지난해 하반기와 동일한 '하이니스(-)등급'을 유지했다. 해외점포 현지화등급은 '플러스(+)'등급, 은행본점 국제화등급은 '제로(0)등급'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금리인상과 해외감독당국 규제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이 해외영업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점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 쉐보레 백만대 판매 돌파

### 백만 번째 차량 구입 고객 차량 전달식

한국지엠이 쉐보레(Chevrolet) 브랜드 국내 시장 도입 6년 만에 1백만대 판매를 돌파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한국지엠 카허 카셈(Kaher Kazem) 사장은 5일 오후, 1백만 번째 차량(말리부)을 구입한 이상범(36, 서울시 양천구) 고객을 한국지엠 부평 본사로 초청해 영업·서비스·마케팅부문 데일 설리번(Dale Sullivan) 부사장을 비롯, 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카셈 사장은 "한국지엠이 쉐보레 국내 도입 이후 단기간에 1백만대 판매를 돌파한 것은 글로벌 브랜드가 제공하는 가치와 제품의 상품성을 믿어 준 고객 덕분"이라며, "뜻깊은 이정표를 기반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범씨는 "저와 같은 선택을 한 99만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함께 축하할 일"이라며, "매력적인 디자인과 믿을 수 있는 안전성을 고려해

쉐보레 말리부의 오너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엠은 1백만대 판매와 국내 최대 소량축제 코리아페스타를 기념해 9월 한 달간 '쉐비 페스타(Chevy Festa)' 프로모션으로 풍성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정 기간 생산 제품에는 콤보 할부 조건에 차종별로 최대 8%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말리부 구입 고객 2천명과 트랙스 고객 1천 명을 대상으로 5% 할인을 통해 각각 최대 165만원 및 127만원의 구입 비용 절감 혜택을 선사한다.

또한, 출시 이후 1천대 판매를 돌파하며 국내 고성능 퍼포먼스카 시장에 한 획을 그은 수입 스포츠카 카마로SS는 쉐비 페스타 프로모션으로 4%의 할인을 적용해 최대 203만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밖에 임팔라와 울란도, 캠퍼바 구매 고객에게는 각각 6%, 7%, 8%의 할인을 제공한다. /군산=김필관 기자

# 농진청, 듀얼카메라 이용 접목시스템 세계 최초 개발

### 두대의 카메라 활용... 모종의 접목부위 자동으로 인식하고 절단해 접붙여

두 대의 카메라를 활용한 이중 영상 장치로 모종의 접목부위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절단해 접붙이는 첨단 자동 접목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6일 시설작물 재배 시 필요한 육묘 공정 중 열매모종(접수)과 뿌리모종(대목)의 절단, 집게 낚기 등 장시간 단순 반복인 접붙이기 작업을 영상기술을 적용해 자동화한 초정밀 접목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접목시스템은 열매모종과 뿌리모종을 접붙이는데 작물마다 휘어진 정도가 달라 어려웠던 두 모종의 절단면 상태 정보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두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얻은 영상정보로 절단면이 정확

히 맞닿도록 한 기술이다.

이 접목시스템은 외국의 접목장치와 달리 수박, 오이 등의 바과류와 토마토, 가지, 고추 등 가지과 작물 모두에 접붙이기 작업이 가능하다.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과채류의 60% 이상이 접붙이기를 거쳐 육묘된 모종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수박, 참외, 오이 등의 품목은 90%이상의 모종이 접붙이기 작업을 거치고 있다.

접붙이기는 모종준비, 뿌리모종 및 열매모종 절단, 절단면 접합, 집게 고정, 접목부 심기 등 6단계의 작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육묘 과정에서 소요되는 총 노동시간의 4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작업이다.

접붙이기는 품종에 따라 10~20일

전후로 육묘된 모종을 이용하기 때문에 육묘온실의 환경에 따라 출기가 휘어지는 정도가 달라 작업의 정밀도를 높여가야 어려웠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카메라 영상을 통해 인식된 모종 줄기의 절단면이 가상으로 설정한 중심선에서 벗어난 정도를 영상처리를 통해 정밀하게 계산하여 절단면이 서로 오차 없이 완전히 붙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마토, 가지, 고추 등 가지과 작물에 대해서는 접목시스템의 모종 공급부에 자동으로 모종을 투입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됐다.

열매모종은 접붙이기를 위한 줄기 절단 부위가 일정해야 하므로 뿌리부분이 절단된 모종을 직접 공급하게

된다. 뿌리모종은 종이포트에서 육묘된 모종을 로트 팔이 육묘트레이에서 뽑아내어 자동으로 접목시스템에 공급하도록 했다.

모종이 자동으로 공급되는 초정밀 접목시스템은 영상인식 기술의 적용을 통해 접목성공률 95%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모종 자동 공급장치와 이중 카메라가 없는 기존의 접목장치에 비해 50% 정도의 노력절감이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영상인식 기술을 이용한 초정밀 접목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10-2016-0089040)해 산업체에 기술이전 했으며, 올해 10대가(중국, 인도, 루마니아, 요르단) 수출됐고, 현재 중국, 터키 등에 20여대의 수출 계약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뉴스1

## 한진, 청림누리 문화제 참여... 청림의식 제고 다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청림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5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제2회 청림누리 문화제'에 참여해 공직사회 부패 근절과 청림의식 제고를 다짐했다.

청림누리 문화제는 전북혁신도시 입주 기관 4곳과 전북도 등 공공기관 3곳이 지난해 첫 합동 문화행사를 가진 후 올해로 두 번째 맞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박정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상욱 전기안전공사 감사, 농촌진흥청장 등 도내 7개 공공기관 대표와 민간단체, 시민, 학



생 등 1000여명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청림한 당신이 깨끗한 세상을 만듭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각 기관 대표자와 감사 책임자들이 청림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친 데 이어 청림 콘서트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들이 펼쳐졌다. /뉴스1

## 농어촌공, 영농철 가뭄 해결 위해 가압장 설치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북 군산 옥구읍 이곡리 대간선(大幹線)에 가압장을 설치해 영농철 가뭄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6일 밝혔다.

농촌공사 군산지사에는 따르면 이곳 대간선(수로)은 경사가 없어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옥구저수지에 물 저장에 어려웠다.

이에 따라 대간선에 가압장(유속증가 장치)을 설치해 농번기 극심한 가뭄 속에도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을 할 수 있었다.

옥구저수지의 유효저수량은 1282만 6000t으로 인근 옥구지구와 미성지구 2260ha에 월평균 400만t의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이춘성 군산지사는 "가뭄을 해결하고 수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기에 가압장을 설치해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물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1

## 생리대 부작용 신고 보름 새 '급증'

생리대를 사용한 뒤 부작용을 겪었다는 신고가 최근 보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9월4일까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사이트를 통해 보고된 생리대 부작용 신고는 총 74건으로 집계됐다.

이전에도 생리대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돼 있었지만 사례가 신고된 적은 없었다. 최근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자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원래부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사

이트를 통해 부작용 신고를 받고 있었다"며 "보름 새 74건이 신고됐다. 그 전에는 부작용 신고가 없었는데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 신고 방법을 알게 된 소비자들 접수하면서 건수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약처 관계자도 "최근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이 크게 이슈화 되면서 부작용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 같다"며 "그 전까지는 부작용을 겪었다고 신고된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자 답답아 부작용 사례 신고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1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온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